

시인의 마을



복숭아

시시를 담다

복숭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 실마, 농담이 겹치 하면서 후식으로 먹던 복숭아에 덜 껌인 달이 있었나보다. 응급실을 다녀오야 놀란 가슴을 쥐어뜯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그 사이,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일 년 내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 복숭아다. 그 흔한 복숭아도 도움을 받아야만 맛을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종종 만나곤 한다.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귀한 것이 있어도, 손에 쥐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이런 일이 비단 복숭아뿐이겠는가? 생선도, 고기도, 향신료도, 그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대상일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이란 별거 없다. 서로의 손이 되어, 입 안 가득 넘치는 터질 것 같은 함박웃음을 나누면 된다.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작은 배려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일을 꺾어주는 사소한 배려가 상대방이나 집단을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열심히 복숭아를 꺾을 때이다. 그 누군가를 위해.....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바라만 봐도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합니다. 그깟 복숭아와 눈이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농담이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꺾어주었습니다. 포크로 아무렇게 찍어 한 접시 비우려는 찰나였습니다. 복구멍이 간질간질 119 빨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꺾어야지, 털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 복구멍이 간질간질하더니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근지럽기도 하고, 죽을 것만 같아. 온몸에 발진도 일어나고.

그렇게, 응급실을 다녀오야 알았습니다. 비로소 나와 다르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도불이(身土不二)라는 평범한 믿음으로 로컬푸드를 찾았습니다. 딱딱한 듯 부드러운, 달콤지근한 햇복숭아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 시너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망설임 없이 시창바구니 담아 봅니다. 흐르는 물에 잔털을 제거하고 기다립니다.

큰 눈 부릅뜨고, 맛보기 위해 함박웃음 짓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근질근질 바구니 가득 털복숭이를 꺾어 내어 놓습니다. 행복이 입 안 가득 넘쳐흘러 터질 것 같은 날에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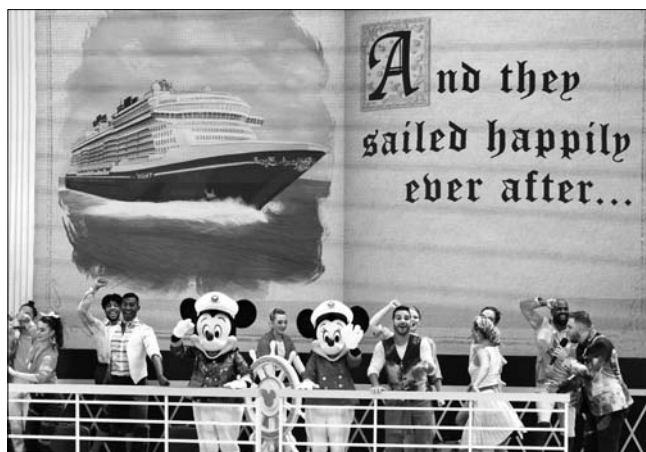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성 베드로 축일, 동상 옮기는 페루 어민들



6월 29일(현지시간) 페루 푸쿠시나에서 천주교 어부 수호성인 '성 베드로'를 기리는 축일 행사가 열려 열성 신자들이 성 베드로 동상을 옮기고 있다.

"영원히 행복하게 향해했습니다"



6월 2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포트 케내버럴에서 유람선 '디즈니 위시'호 세례식이 열려 디즈니 캐릭터 미키와 미니, 무용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디즈니 크루즈 라인의 다섯 번째 유람선인 디즈니 위시는 7월 14일 포트 케내버럴을 출발해 비하나 나소를 거치는 3박 4일 일정을 소화한다.

사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50년사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50년사' 출판기념회가 지난 6월 28일 전라북도 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을 비롯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윤석정 전북애환운동본부 총재,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우병기 전주시장 당선인, 그리고 전북연합회 이사, 지문위원, 시·군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는 관계자에게 감사패, 표창장을 전달했다. 감사패는 안병춘 집전 전북연합회 사무처장, 표창장은 김애자 전북도 노인정책팀장과 전북연합회 직원들에게 수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에게 각각 50년사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두봉 회장은 "전북연합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전북노인회관'이라는 독립 청사 마련

과 50년사 발간이라는 두 개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며 "앞으로 김관영 차기 전북도지사에게도 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전북연합회에서 추진해 온 활동과 업적은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물론 전북도민의 사기와 긍지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번 50년사 발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지난 50년 동안 전북연합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물론 사회 공헌, 평생 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서 왔다. 백세시대에는 시대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활기찬 장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전북연합회가 앞장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전북연합회가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노인의 위상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노인의 위상이 제대로 서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전북 여야 협치 물꼬

전북 지역에서 최근 여야의 협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 정운천 위원장과 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주시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협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시장 당선인도 같은 날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 위원장을 만났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자며 손을 맞잡은 것이다.

지역 발전과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신념으로 삼고 전북 발전을 사명으로 여기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해야 할 때이다.

정 위원장은 "소통을 위한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당선인은 앞서 6월 15일 정 위원장을 초청해 인수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이다. 협치를 통해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을 기대한다. 정치를 넘어 한뜻으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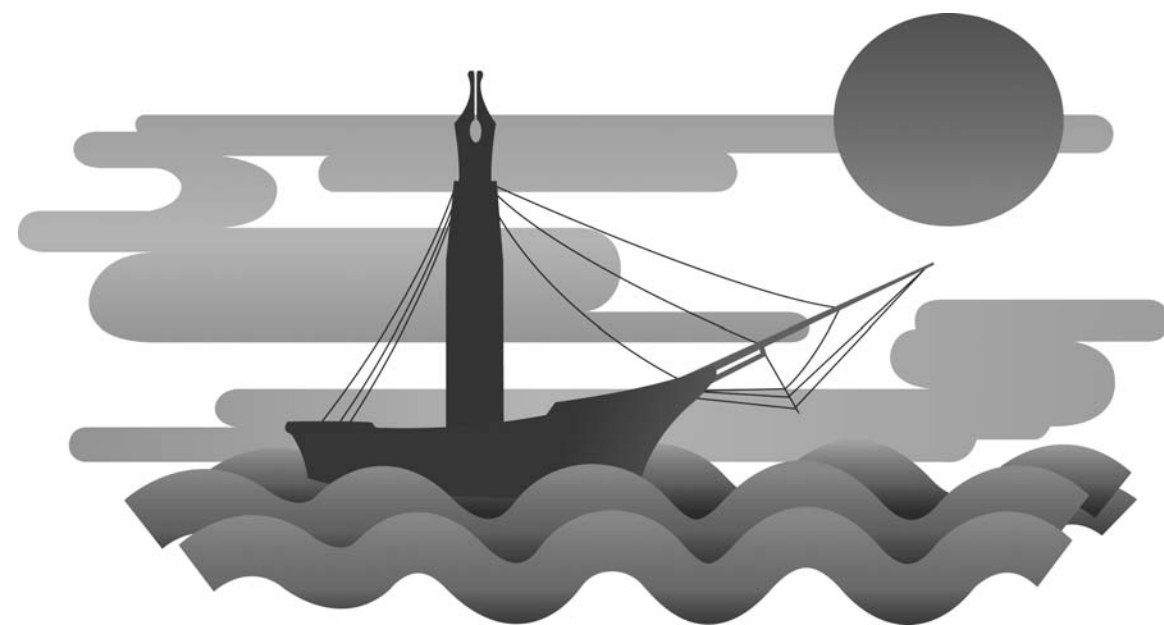
농림부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등을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특강이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전주시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협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시장 당선인도 같은 날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 위원장을 만났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자며 손을 맞잡은 것이다.

지역 발전과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신념으로 삼고 전북 발전을 사명으로 여기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해야 할 때이다.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이다. 협치를 통해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을 기대한다. 정치를 넘어 한뜻으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